

마지노선 1001원 근접... 中企 환율 비상

전자부품·광산업 등 수출기업 영업이익 곤두박질

1008.5원까지 급락 ... 환헛지도 못하고 '발동동'

#인쇄·포장용 종이를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광주의 A제지업체.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최근 영업이익이 10%가량 곤두박질했다. 이 업체는 달러당 1030원이 이익이 날 수 있는 마지노선이지만 달러가 원당 1010원대 밑으로 떨어지자 원가 절약방법 찾기에 나섰다.

#알루미늄코일을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에 수출하는 광주의 B업체 역시 원화 강세 탓에 최근 들어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적자 상태에 직면했다. 환보합 등 환헛지 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줄이려 하고 있지만 환율 하락세가 더 빨라 큰 도움을 얻지 못했다. 결국 이 업체는 거래 회사에 단기 인상을 요청하며 매출감소를 막고 있다.

광주 수출 중소기업들이 올해 들어 급락중인 환율로 인해 이종고를 겪고 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보다 0.7원 내린 달러당 1008.5원에 장을 마쳤다. 증가 기준으로 2008년 7월 28일 1006.0원 이후 최저치다. 2012년 5월 달러당 1184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200원 가까이 하락한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94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전망하는 올해 최저 환율은 달러당 1001원, 100엔당 975.7원이

다.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중소기업계가 예상한 최저점인 1001원에 환율이 근접한 것이다. 특히 무역보험공사가 5월 밝힌 우리 수출기업의 손익분기점 1045원과 비교하면 현재 환율은 무려 37원이나 낮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환율 변동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해외 생산, 물류·재고 관리 등을 탄력있게 운용하기 힘들고 자금력이 떨어져 단가 조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B업체의 경우 영업이익의 마지노선이 1050원에 달해 수개월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단가 상승은 2% 대에 그쳤다. 더 이상 올렸다가 '거래선'이 끊길 수도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전자부품과 금형, 광산업위주의 광주지역 수출업체들은 재산성 악화 및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역보험협회와 중소기업청 등은 환변동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환율 예측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업체들에 보내고 있지만 업체들에게 직접 도움되는 대책은 찾기 힘들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환헛지 상품을 이용해 하락세가 더 빠르다 보니 환차손을 계산해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이 세자리 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직원이 쇼핑객에게 우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신세계·롯데백화점 '기상 마케팅' 활발

우산 빌려주기 등 이벤트

지역 백화점들이 장마철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로 고객 끌어모으는 '기상 마케팅'에 나섰다.

광주신세계는 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테마행사로 '레이니 데이 이벤트(Rainy Day Event)'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광주신세계가 위치한 지역에 5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신세계백화점 스마트 앱에 접속한 쇼핑객에게 우천 관련 상품을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산 여성 레인코트와 남성 레인재킷 가격이 30% 할인된다. 레인부츠, 젤리슈즈, 샌들도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고 사은선물로 우산이 증정된다.

광주신세계는 구매고객들에게 레이니 마일리지 적립서비스 및 적립 횟수에 따른

사은선물도 제공키로 했다. 앱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는 습기를 없애는 세습제를, 당일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는 신세계상품권(5000원권)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장마철 백화점을 찾았다가 갑작스런 비로 발이 묶인 고객들을 위해 우산을 빌려주거나 주차장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하 1층 안내데스크에서 롯데백화점 로고가 새겨진 디자인 우산을 대여해주고, 빌려간 우산을 나중에 반납하면 감사품을 증정한다. 또 롯데백화점 광주점 남문과 남문 주차장 사이에 놓인 길을 건널 때 사용할 수 있는 우산을 비치, 고객들이 비에 젖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집에 돌아갈 때까지 쇼핑백이 비에 젖어 찢어지지 않도록 쇼핑백 비닐 커버를 제공하는 '레인 커버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10.97 (-4.31) ▲ 금리 2.60% (+0.02)

▲ 코스닥 550.68 (+1.65) ▼ 환율 1008.50원 (-0.70)

광주·전남 6월 주식거래량·대금 감소

광주·전남지역 주식투자자들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6월 중 주식거래량은 2억3188만주(13.08%) 감소했다. 거래대금도 1조8163억원에서 1조6145억원으로 2018억원(11.11%) 줄었다. 순매수량도 186만주나 줄었다.

전체거래에서 차지한 비중도 하락, 거래량은 2.27%(5월 2.31%), 거래대금은 1.43%(5월 1.54%)에 달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STX, 동양, KODEX레버리지, 이스타코, 페이퍼코리아 순이고, 코스닥은 키이스트, 국제디와이, 위지트, 흥구석유, 엠제이비 순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하반기 광주, 나주혁신도시

1만여가구 신규 분양·임대

지난해보다 25% 증가

올 하반기 광주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25%가량 증가한 1만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부동산사랑방(homesrb.co.kr)은 3일 광주와 나주 주거단지를 조사한 결과 올 하반기에 19개 단지 1만여 가구가 신규 분양 및 임대로 나서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개 단지 7500가구보다 증가한 수치다. 광주에서는 7월 서구 매월동 EG스위트밸리 옆 한국이텔리움로 제비양 686가구가 분양되며, 66㎡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남구 월산동 영무에는 149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또 일곡 엘리트 프라이빗 526가구(전용면적 74~84㎡), 북구 중흥동 도나운타운 166가구

(전용면적 52~84㎡), 양산지구 진아리채 174가구(전용면적 83㎡)도 청약의 앞두고 있다.

하반기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일반분양을 시작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달 상무지역주택조합인 상무광명메이루즈와 각화지역주택조합인 서희스타일스의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다. 상무광명메이루즈는 68·84㎡ 496가구, 서희스타일스는 76·84㎡ 1032가구로 구성됐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는 이달 임대아파트인 중흥S-클래스 리버티가 공급된다. B10블록에 있으며 전용면적 84㎡의 단일주택형 698가구로 구성됐다. 8월에는 광산구 쌍암동에 공급되는 첨단 중흥S-클래스 42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9월에는 옛 남구청 부지에 제일풍경채가 공급된다. /임동률기자 exian@

농어촌공 전남본부, 3년 연속 최우수 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내부 평가에서 전국 처음으로 3년 연속 최우수 지역본부의 영예를 안았다.

3일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사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전국 9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 경영평가를 한 결과 전남본부가 최우수지역본부로 선정됐다.

농어촌공사는 지역본부별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개선 유도를 통한 공사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9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성과, 고객, 활동, 미래관점 등 4개 분야에 대



해 매년 평가를 해오고 있다.

전남 본부는 2012년 김행운 본부장 취임 이후 체계적 경영성과 관리와 함께 영산강을 적극 발굴해 지역 농업발전에 힘쓰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농지은행사업, 지역개발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수자원 관리 등 업무 전반에서 탁월한 실적을 쌓은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2015년형 스포티지R' 출시

상품성을 크게 강화한 '2015년형 스포티지R'이 2일 출시됐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스포티지R 새 모델은 도어 벨트라인(유리창과 도어의 접합부분)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마감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했고, 기어 변속부분을 감싸고 있는 인디케이터 패널도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해 감성 품질을 높였다.

또 센서를 통해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하는 타이어공기압정보 시스템(TPMS)을 전 모델에 적용했으며 흡연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라이터 대신 USB 충전



전기를 전 모델에 장착했다. 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 럭셔리 모델 2235만원, 트랜디 모델이 2405만원, 프레스티지 모델이 2590만원, 노블레스 모델 2785만원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NAVER 광주 소리큐

광고심의일 2012-10-18-1326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강의를 들을때 핸드폰 통화할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동구청 남도청 남양주농협 전남대병원 화순 소리큐보청기 친변로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